

생태유토피아 섬의 다양한 경로들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1. 생태유토피아의 지속(불)가능성.

1921년 소설 <바다와 사르데냐>를 쓴 DH 로렌스는 “이 땅은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다. 사르데냐는 무언가 다르다. 매혹적인 장소들과 여행하기에는 먼 거리. 아직 끝나지 않은, 아직 확고한 것이 없는, 이 땅은 자유 그 자체다”

전에는 이상적인 낙원이었던 곳이 NATO의 군사주의 산업복합체와 그것의 기생물들에 의해 지구상의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위의 글은 바네사 빌리(Vanessa Beeley 2016)가 나토(NATO)를 포함한 군사기지과 이에 따른 독성물질 피해가 어떻게 사르데냐를 자유의 땅에서 지구상의 지옥처럼 변질시켰는지를 격하게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사르데냐는 군사기지의 치명적인 현존보다는 생태유토피아적 섬 문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르데냐는 24,000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지중해 연안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며, 이태리 본토의 10분의 1의 크기다. 사르데냐는 세계 최고의 장수지역으로 선발되었을 뿐 아니라, 자연그대로의 오염되지 않은 해변으로도 유명하다. 사르데냐 섬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녀의 평균수명이 비슷하고” “현재 지구상의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100세 노인의 숫자가 평균 여섯 배 이상 많은” 지역이다(수전 핀커 2015: 25). 100세 이상 장수자의 수가 많아 ‘블루존’에 선정되었다. 사르데냐의 생태 유토피아적 이미지는 관광객의 증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60만 인구인 사르데냐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1년에 1200만 명이나 된다. 사르데냐 지역정부는 최근 ‘끝이 없는 사르데냐(Endless Sardinia)’라는 구호를 내걸고 복합적 체험을 유도하는 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르데냐는 산, 바다, 독특한 토착 문화, 역사, 지역적 다양성 등 끝이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사르데냐는 해안지역, 산악지역, 동서남북의 위치에 따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역사와 문화가 독특하고 다르다. 동시에, ‘끝이 없는 사르데냐’는 ‘섬’의 독특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미 과도한 개발과 정형화된 형태의 근대화를 통해 독특성이나 토착성을 상실한 자본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있던 섬은 오히려 강한 매력과 흡인력을 지닌 공간이기 때문이다.

섬 또는 섬나라들은 물리적 위치, 기후, 함유하고 있는 천연 또는 문화자원, 파괴되지 않는 독특한 생태계 덕분에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륙에서 떨어진 섬은 과학적 관심을 끌 만큼 생태계가 소우주의 신비를 간직할 뿐 아니라, 종간의 내부 경쟁이 세지 않아 대륙보다 다

양하고 특이한 형태의 동식물군이 생존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는 세금, 체류 규정, 특별 혜택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관광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 특성으로 유지되어 온 배타적인 결속 문화는 섬이 본토나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와 자율을 요청해 온 근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섬이라는 지역성은 의식주 및 생계양식, 심리적 특질을 포함하여 토착성이 구성되는 곳이고, 생태계의 보고이면서 동시에 언제든 중앙정부의 정치적 통제와 ‘남용’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섬지역의 대표적 ‘남용’ 사례는 위험의 외주화(externalization of risks)를 목적으로 한 군사 기지 설립이다. 사르데냐는 이태리 군사기지의 80퍼센트가 집중된 초고도화 된 군사복합단지이다. 오랜 기간 ‘비밀주의 원칙’에 의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사시설 및 오염물질의 저장고인 사르데냐의 모습은 생태유토피아 섬의 또 다른 현실이다. 오염되지 않는 생태계의 보고 및 장수지역이라는 이미지와 최근 새롭게 가히 재앙적인 위험성이 폭로되고 있는 군사기지로서의 사르데냐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본토 혹은 중앙정부와 맺고 있는 모순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양립 불가능한 현실과 경험이 공존하는 사르데냐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섬지역의 가능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목격할 수 있다. 본 발표문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사르데냐를 어떻게 낙원과 지옥이라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했는지를 분석하는 글이다. 문헌 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사르데냐의 경험을 외부인의 시선으로, 동시에 전 지구적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해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개발 및 발전 정책과 그 방향을 위한 비교/참조체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생태유토피아의 지속가능성

1) 장수 신화: “그 마을에서는 주말마다 함께 빵을 굽는다.”

수전 핀커(2014)는 <빌리지 이펙트>라는 책에서 사르데냐 산악지대 사람들이 어떻게 장수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면서 그 요인을 “그 마을에서는 주말마다 함께 빵을 굽는다.”로 표현한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주말마다 이웃 친지들과 함께 모여 빵을 굽고, 광장에 모여 수다를 떠다. 양치기와 농사 등 주로 고된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산악지대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무려 20-30년이나 오래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고민하다가 나온 대답이다. 사르데냐인들은 산악지대에서 살면서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으므로 풍토병과 외부인의 침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동시에 배타성을 갖게 되었다. 이 지역인들에게는 ‘바다에서 오는 자는 다 도둑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런 배타성이 부정적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니다. 고립은 오히려 끈끈한 가정애와 공동체 정신을 만들어냈다. 장수는 양젖, 치즈, 와인을 포함한 지역 음식과 함께 사회적 결속력 덕분에 가능했다. 사르데냐는 토착적인 재료와 스페인, 아랍, 북아프리카 등의 영향을 받아 발전된 독특한 식문화로 2010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중해 식문화’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토착적 방식으로 재배된 120여종의 포도에서 생산된 와인들, 목축업의 발달로 만들게 된 염소치즈 및 카스 마루주(Casu Marzu)라 불리는 썩혀 만드는 치즈,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와 빵 등은 사르데냐의 매력적인 ‘토착’ 혹은 향토 음식이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 요소만큼이나 사회문화적 ‘관계’가 장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르데냐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질병에 대한 면역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느슨하고 얇은 관계보다는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즉 가족이나 친족이 제공하는 진정한 사회적 지원과 강렬한 소속감이 이러한 유대 관계의 핵심이다. 이는 사르데냐인들이 지위 혹은 거리와 상관없이 나이 든 가족을 찾아가는 일을 도덕적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산지라는 지형적 특성에서 기인한 지역적 고립과 유전적 고립, 식습관 등이 사르데냐 지방의 놀라운 장수 비결이자 조건이다. 이 때 가장 핵심적인 문화적 요소는 사르데냐 마을의 일상이기도 한 “얼굴을 마주하는 접촉”이다. 얼굴을 마주하고 빵을 나누는 문화는 외부인에 대한 관용과 환대로 확장된다. 이런 사회문화적 속성은 사르데냐 사람들이 단순히 배타적이라기보다 사르데냐인의 정체성과 강한 자부심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관광객이나 타인을 배려하고 환대하는 독특한 섬 정체성, 즉, 인슐라리타를 발전시켜낸 결과다. 이런 관점은 사르데냐의 관광 유치 및 생태계 보전 정책에 잘 반영되어 있다.

2) 생태 지향적 관광

7년째 기아지역(Baia Chia) 시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마리아 콘체다스타다씨는 한국에서 온 연구진을 해안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위로 데려갔다. 그녀는 “지금 보는 대로 바다의 파노라마 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해수욕을 즐기러 온 관광객을 위해 편의시설로 큰 건물 등을 짓는 것보다는 세대를 거쳐 유지될 수 있는 지역민의 정체성을 성장시키게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지역 개발의 방향은 앞선 경험에서 얻은 교훈 덕분이었다. 이전에 이미 대규모 위락 및 숙박 시설을 지어 관광객을 유치해봤지만, 건물주 외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사르데냐 대부분의 해안가에는 그곳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만 건물을 짓게 하는 규정이 있고, 이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진다고 한다. 기아지역은 최근에는 500미터로 그 기준을 높이려 한다. 또한 기아지역은 해변까지 나무로 된 보행로를 만들었다. 해변 근처에는 기아지역에서 설립한 샤워시설이 하나 있고, 여기서의 샴푸, 린스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숙소에 돌아가서 씻어야 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그 안에서 버린 사람의 신원이 드러날 만한 영수증 등을 찾아 1000 유로의 벌금을 물린다고 한다. 기아 지역 시장은 “관광의 목표는 주로 7,8월에만 몰리는 해수욕 위주의 관광객을 연중으로 분산시키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로 맨스 보트를 띄우거나 트레킹 코스, 승마코스를 개발하는 등 지역을 방문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지만, 승마를 해도 말을 타고 해변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을 막는 것이 아니다. 관광객의 장기적 체류와 연중 분산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생태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사르데냐는 천혜의 오염되지

얇은 해변을 홍보하며 관광객을 유치하고 동시에 해변이 관광 사업에 오염되지 않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르데냐는 휴가철에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외부인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섬의 복지와 안녕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섬 자원의 파괴에 둔감하다는 것을 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동식물 또한 파괴적 영향력을 갖기 쉽다. 이 때문에 동식물의 유출 및 유입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파트리자 모디카(Patrizia Modica) 교수와 공동 집필진의 저작(2016)에서 보듯, 사르데냐는 해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기아지역의 예처럼 사르데냐에서 지역의 정체성, 자연문화 보존과 관광객 유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핵심적인 이슈다. 관광 정책의 목표는 짠 가격의 대규모 관광을 유치하기보다 사르데냐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여행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즉, 바다 중심의 관광이 아니라 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질적인 관광을 지향한다.

에너지 대책도 생태계 보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풍력 발전소는 소음이 크고 자연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장려하지 않고, 대신 태양열을 비롯한 대체에너지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욕을 하기 위해 관광객이 집중되는 1, 2월에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쓰레기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형태로도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3) 저항의 관광화

현지조사 시 심층면접을 한 교수는 아래와 같이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었다.

통계청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유럽 사람인가, 이태리 사람인가, 사르데냐 사람인가 라고 물어 문항 분석한 결과 사르데냐 사람들은 사르데냐 사람, 유럽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리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국가의 국민이라는 의식보다 사르데냐 지역공동체 의식이 더 투철하다.

강한 정체성은 유연함을 요청하는 자본주의의 확산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즉, 자본이나 국가 통제력의 유입에 저항하는 지역민의 정체성은 항상 후진적이며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르데냐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전통적이며, 접근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산악마을 중 오르고솔로의 사례는 매우 흥미로운 반전을 제공한다. 연구진이 방문한 젠나루젠투 산맥의 가파른 산비탈에 위치한 마을 중 하나인 오르고솔로는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관광 마을로 부상했다. 오르고솔로는 이태리 정부에 대항한 저항정신이 담겨진 건물 벽화들로 유명할 뿐 아니라 “분리주의 반대파”가 몰려있는 동네로도 유명하다. 오랜 기간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목축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온 사람들은 외부인을 경계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등 ‘악명’이 높았고, 이는 야만적이고 전통적인 것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현재 오르고솔로는 전 세계인의 저항성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68년 11월에 발생한 오르고솔로 주민들의 저항은 지역민들이 자기 보호의 권리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에 들어설 계획이던 사격장 건설에 반대하며 열렬히 저항했다. 이런 지역 운동은 이태리 정부

와 사르데냐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관계에 의문을 표시하는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오르고솔로의 저항은 소외된 지역사회가 자신의 커뮤니티를 지킬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자성이란 개념을 확립시켰고, 프라토벨로 항쟁이라 불리며 군사주의와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저항의 포문을 열었다. 이러한 오랜 저항의 역사는 마을 전체를 뒤덮은 벽화를 통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억과 감정은 후세대들과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계승되고 있다. 연구진이 방문할 당시 오르고솔로는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고 지역 민속품이나 벽화를 담은 우편엽서 등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다. 오르고솔로의 사례는 생태계 및 생계양식이 역사적 경험과 저항 정신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자유를 향한 움직임은 이제 관광객을 불러오는 문화적·역사적 자원이 되고 있다.

3. 군사주의적 제약과 생태유토피아의 불가능성

1) 군사주의를 통한 섬의 남용

사르데냐는 ‘거대한 군사복합지역’(giant military complex)이 되고 있다. 이태리 군을 포함해 나토, 미군기지 등 군사기지의 집중은 사르데냐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소이다. 사르데냐에 어떤 배경과 이유로 군사기지과 실험장이 건설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섬’이란 지역적 환경은 본토가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능을 오랜 기간 수행해왔다. 섬의 오용(abuse)이 가속화되면서 섬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며, 외부의 위협에 면역력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계적으로 육지에 통합되어 간다. 섬은 생태계적으로 독특하고 동시에 취약하다. 한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 섬은 그야말로 생태계적 소우주이며, 내부 경쟁이 세지 않아 대륙보다 다양하고 특이한 형태의 동식물군이 생존할 수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의 보고서에 의하면, 섬이 활용돼 온 방식은 크게 민간차원과 군사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이주를 통한 정착이 발생해 섬에서 나오는 다양한 자원을 가져간다. 인간 정착은 영구정착자와 임시체류자로 구분될 수 있고, 토착적 운반능력(indigenous carrying capacity)의 한계를 곧잘 넘기는 수준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섬을 사용하는 것(use)과 오용하는 것(abuse)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짓기는 어렵다. 섬 오용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군사적 목적으로 섬을 사용하는 것이다(134-140). 냉전시대 강대국인 미국의 초국가적 군사주의의 전략지 역할을 하는 곳은 많은 경우 본토보다는 섬이다. 섬은 이런 점에서 대항 혹은 노동중개자의 역할을 맡도록 요구된다. 일련의 법적 장치 혹은 비밀스러운 거래를 통해 군대가 들어오고 다양한 무기 실험이 실행된다. 군대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섬주민이나 근처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음벰베(Mbembe)가 개념화한 ‘죽음정치적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군복무와 군사 노동은 필연적으로 생명

을 위협에 처하게 함으로써만 수행될 수 있는 일이므로 죽음정치적 노동의 일종이다. 즉, 죽음이라는 궁극적 사건 자체보다 죽음의 가능성에 연결되어 전체적 노동 착취의 매개가 되는 것이다.(이진경 2015: 41). 군사적 목적으로 섬이 사용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군사 실험, 무기 실험장

섬에 군사기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은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와 전쟁을 위한 공격을 위해, 또는 섬의 독립 움직임이나 운동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외부 세력은 자원, 전략적 위치 등 때문에 호시탐탐 수많은 섬들을 점유했다. 섬은 개발무기의 실험지역, 군사훈련지, 그리고 전쟁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1967년 미국과 영국이 인도양의 작은 섬 알다브라(Aldabra)에 공군기지 및 통신시설을 세우려 했다. 이 섬은 아프리카 해안으로부터 640킬로, 마다가스카르로부터 420킬로 떨어진 작은 섬이었다. 무엇보다 이곳은 거대한 군함새의 번식지였다. 공군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대부분의 새들은 박멸 당했다. 섬에서 번식하는 레이산 알바트로스 새는 멸종됐다. 또한 이곳은 알다브라는 거대 거북이의 마지막 서식지기도 했다. 군사기지 설립은 사람들의 유입뿐만 아니라, 건물, 활주로, 인공 항구, 섬을 연결하는 주교 등을 포함한 도로 시스템의 건설을 수반한다. 이 때문에 생태계의 파괴와 멸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초래된다. 군사 기지인 푸에토리코의 쿨레브라(Culebra)섬, 하와이 마나나(Manana) 섬의 생태계 역시 철저히 파괴되었고, 위험한 불발탄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회복조차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1941-42, 2년간 영국의 생화학 무기 시험 기지였던 스코틀랜드의 그레나드(Gruinard) 섬은 1966년까지도 매우 심각한 상태로 오염되어 있었다. 핵무기 실험 시 크레이터의 모든 생명체가 사멸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토양 오염은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마셜군도 비키니섬에서 이뤄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사(Held 1960)에 의하면 유독성 물질들은 이미 영구적인 방식으로 생물지역화학 순환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었다. 핵실험 기지가 있는 섬들에서 주민의 의료적 피해는 불가피하다. 특히 유아와 청소년들에게 갑상선 암 발병 비율이 매우 높다. 비키니 섬은 이후 지속된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수, 토양, 식물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여전히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 있다.

(2) 전투지역

섬들은 '전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Cyprus, Rhodes, Malta, Khios 등 지중해의 몇몇 섬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태평양의 섬들 또한 이차세계대전 중에 폭격지가 되면서 생명체의 손실은 물론 생태계 교란과 사회적, 생태적 격변을 겪었다.

스톡홀름 보고서의 저자들은 설사 의도가 좋다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군사적 사용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전쟁 중에는 호전적인 세력의 분노감이 표출되기 쉬운 장소가 바로 섬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미사일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섬이 핵무기용 해군기지로 개발

되어야 할 근거는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이 군사기지화 되는 것은 냉전 체제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군과 관련된 사업이 이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탈냉전시대에는 군대의 민간 군사기업화가 촉진되는데, 역설적이게도 민간군사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것 또한 1990년대 초반이다(켄 실러스타인 2007, 강미연 118쪽에서 재인용). 이는 자본주의와 군사주의가 결합되었음을 의미한다. 탈냉전으로 군사비는 상대적으로 감축된 반면, 신무기를 만들기 위한 연구 개발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들은 이 비용 부담을 시장에서 해소하고자 했다(강미연 2011: 122). 안보는 구매하는 것이고, 전쟁 그 자체가 새로운 시장 혹은 자본주의의 확장의 활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나오미 클라인 2008). 재난자본주의복합체라는 말은 전 지구적 불안의 상황, 즉 전쟁, 테러, 자연재해, 경제 위기 등의 ‘재난’이 민영화된 군사복합체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들이 ‘쇼크’ 상태를 유지, 활용해 자본 축적을 도모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2) 사르데냐의 군사기지 문제와 재앙의 일상성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구제 및 복구 자본의 대부분은 사르데냐의 군사기지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태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로켓 발사장이 1956년 사르데냐에 건설되었다. 몇 년간의 확장을 통해 Inter-Service Test and Training Range (PISQ)는 유럽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실험과 훈련센터로 자리 잡게 된다. 이태리 공군에 소속된 PISQ는 사르데냐 동쪽 해안의 올리아스트라(Ogliastro)지역에서 12,000 헥타르의 지역을 차지했다. PISQ에서는 일상적인 군사훈련, 미사일 우주 연구와 신원료 실험, 이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NATO)의 전자전쟁 훈련 등이 이뤄졌다. 사르데냐에 군사기지가 설립된 것은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던 섬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시 이태리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던 사르데냐의 경제회복을 위해 마샬 플랜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사르데냐에는 생계형 농업 이외의 별다른 경제 수입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군 기지는 유일한 대안처럼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경제적 혜택에 대한 믿음은 지난 47년간 군 기지로 인한 건강과 환경 위협에 대해 침묵하게 만들었다. 2000년이 돼서야 군 기지 주변 지역에서 생겨나는 암, 백혈병들의 발병 사례와 기형 동물들의 출현 등을 통해 군 기지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군대의 ‘비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군대가 만들어내는 환경적 재앙은 조사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미디어나 언론이 영향이 컸다.

사르데냐에 군사기지가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군사기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시기별로 변화해왔다. 지역 신문 등 미디어의 기사 내용을 분석한 아이디 에수(Aide Esu)와 시모네 맛다누(Simone Maddanu)는 군사기지의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점이 정보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르데냐의 군사기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의제는 미디어에 의해 일정부분 ‘프레임’되어 왔다. PISQ가 설립된 1956년부터 1968년의 기간 동안 미디어는 군사기지의 설립을 낙후된 전통의 대안 즉, ‘현대화’로 규정했다. 우주, 미사일, 고급기술을 제공하는 군사기지가야말로 기술적 혁신과 탁월함으로 사르데냐의 낙후성, 전통, 후진성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 우세했다. 또한 1968년부터는 사르데냐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개입과 노력을 요청하는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군사기지 PISQ는 이태리, 미국,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과의 국내, 국제적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사르데냐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성공의 상징으로 재현되었다. 군사기지는 가난과 이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대화적 경제발전의 기회이며 농업-목축업에 고착된 지역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기반투자와 기술적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했다. 모든 위험이 집중된 군사기지의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기보다는 사르데냐의 고립, 빈곤, 배타주의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군사기지를 상상하게 만들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지역운동이 일어났지만 이런 현실을 소수의 의견으로 수용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군사기지에 연관된 단어는 주로 로켓, 프로젝트, 계약, 선구자, 기회, 발전, 미래, 안전, 현대적이란 단어로 군사기지의 현존을 정당화하고 미화했다.

1969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핵무기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반전운동이 확산된 시기였기 때문에 사르데냐의 군사기지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평화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저항의 초점은 사르데냐 북부의 라 마다레나(La Maddalena)에 위치한 미국 핵무기 잠수함 부대였다. 오로고 솔로 지역의 격렬한 저항 운동 및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디어와 언론은 군사기지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외연들을 확장한다는 이유로 군사기지를 적극 옹호했다.

1981년부터 2000년 동안 처음으로 군사기지가 지역주민에게 어떤 위험과 재앙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주요 행위자들은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단체였다. 이런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미 군 기지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일으키는 사고와 재앙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은 군사기지가 성공적인 국제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준다는 이유로 시민사회와 군사기지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했다. 체르노빌 이후 핵 관련 사고와 재앙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PISQ 인근 지역의 주민 피해 사례를 공론화시켜냈다. 하지만 다른 민간기업과는 달리 군대는 어떤 정보나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비밀주의 원칙에 의해 늘 면제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지역 운동은 어떻게 군대가 헌법에서 보장된 지역민의 경제적 발전과 지방자치의 힘을 약화시켜왔는지 말하며 의식화 운동을 전개했다. 군대는 지역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지역민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은 발칸 신드롬(Balkan Syndrome)과 쿠이라 신드롬(Quirra Syndrome)으로 대표되는 군사기지의 직접적 영향에 대한 ‘증거’가 보고되는 시기다. 발칸반도에 배치되었던 나토 군인들의 암과 백혈병 증상을 보고한 발칸 신드롬과, 쿠이라 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발명이 보고되면서 경제적 이익보다 인간과 동물의 건강 문제가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군사기지와 건강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지만,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는 이미 피해가 엄청나게 가시화된 2013년에 처음 진행되었다. 마우로 크리스탈디 등은 (Cristaldi et al, 2013) 로켓발사 실험 등의 무기 실험장으로 이용된 남서부 군 기지 지역의 환경오염조

사를 통해 유해 물질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밝혀냈다. 동물 기형이 발생했고, 양, 치즈, 꿀 등에서 다양성이 축소되었으며, 밀을 포함한 푸드 체인 깊숙이 오염이 진행되었다. 인간 혈액 림프 종양과 암 발생이 높았지만, 여전히 비밀주의 원칙에 의해 전수조사가 불가능했으며, 해양 오염은 아직 연구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안전, 안보, 일자리 등의 이유로 지지를 받아 온 군사기지의 위험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환경오염 피해자를 구제하여 돈을 버는 재난자본주의복합체까지 등장할 판이다. 군사주의 산업은 무기 거래나 군수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위기를 관리하고 복구하는 모든 작업에 참여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르테냐에서는 군사기지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하다는 데에 있다. 연구진이 인터뷰한 공무원과 지식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는 “군사기지의 오랜 현존 덕분에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어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매우 역설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만큼 사르테냐는 생태중심의 관광과 군사기지에 대한 의존이라는 역설적 경로를 모두 포괄하고 있었다.

4. 제주와의 비교 및 참조체계로서의 사르테냐

이미 난개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제주는 평화의 섬이라는 핵심가치와 군 기지, 쓰레기 처리, 생태 지향적 정책과 가이드라인 부재 등에서 오는 반-생태적 상황사이에서 새로운 경로를 구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강정에 들어선 해군기지까지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사르테냐는 제주보다 면적은 13배 크고, 인구는 3배 더 많다. 그렇지만 생태와 토착성의 보존이자 군사적 전략지로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토착적 식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덕분에 에코파라다이스로 부상하는 사르테냐와 군 기지의 집중화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인간 생명에 대한 위협 사이에서 사르테냐가 취해온 노선을 어떻게 제주의 발전을 위한 참조체계로 구성할 수 있을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르테냐가 보여주는 섬으로서의 오용된 경험과 자치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는 제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인간이 초래한 다양한 ‘위험’들이 전 지구적으로 산재한 상황에서 섬 지역 주민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섬’이란 특수성이 토론과 논의의 방식, 해결책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들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환경은 단순히 인간 ‘외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환경은 물리적, 생물학적, 인지적으로 구성된 상호의존적인 개념이며 인간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또한 재앙은 자연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사르테냐와 제주는 상호 참조 체계를 가 될 수 있다. 서로 연결되고 대화하며 접속의 정치를 구성해갈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시작으로 생태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전 지구적 섬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능력 또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수전 핀커. 우진하 역. (2015). 빌리지 이펙트. 21세기 북스.
- 강미연.(2011). “탈냉전 자본주의: 전쟁도 상품이다,”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서울: 이후, 105-135
- 나오미 클라인. 김소희 역. (2008). 쇼크 독트린. 서울: 살림.
- 이진경. 나병철 역. (2015). 서비스 이코노미: 한국의 군사주의·성노동·이주노동. 서울: 소명출판.
- Modica, Patrizia and Muzaffer Uysal. (2016). Sustainable Island Tourism: Competitiveness and Quality of Life. CABl.
-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80). Warfare in a Fragile World: Military Impact on the Human Environment. LONDON: Taylo & Francis Ltd.
- Fabrizio Bianchi. (2012). Lessons learned from the 'Quirra syndrome': more epidemiology and prevention. *Epidemiologia e prevenzione* 36(1): 45-48
- Antonio Sorge. (2015). The past sits in places: Locality, violence, and memory in Sardinia. *Critique of Anthropology* 35(3): 263-279,
- Franco Lail. (2013). Nature and the city: the salt-works park in the urban area of Cagliari (Sardinia, Italy).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20(1): 329-341
- Giuseppe Ioppolo et al. (2013). From coastal management to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sustainable eco-tourism program for the mid-western coast of Sardinia (Italy). *Land Use Policy* 31: 460-471
- Eliot A. Cohen. (2000). Reviewed Work(s): *The Postmodern Military: Armed Forces after the Cold War* by Charles C. Moskos, John Allen Williams and David R. Segal. *Foreign Affairs* 79(3):165
- Massimo Zucchetti. (2005).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ealth effects in the Quirra Area, Sardinia Island (Italy) and the Depleted Uranium Case. *Journa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logy* 7: 82-92
- Mauro Cristaldi. et al. (2013). Toxic Emissions from a Military Test Site in the Territory of Sardinia,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0: 1631-1646
- Aide Esu. et al. (2017) Military pollution in no war zone: The military representation in the local media. *Journalism* 18(4): 1-19
- Edited by Biagio Guccione et al. (2008). *Linking Urban Developments to Green Areas; An Overview of Good Practices In Europe*. Green Links
- Giulia Lombardo. <Sardinia's future under threat!>. Backhill Online
- Tracy Wilkinson. <Sardinia Says It's Time for the U.S. Navy to Leave Port; The military's

presence impedes the island's growth as a tourist haven, locals say.>. Los Angeles Times, 2005. 7. 17

Sandra Jontz. <U.S. Navy closes base on Sardinia>. Stars and Stripes, 2008. 3. 1

Helen Jaccard. <Sardinia: Militarization, Contamination & Cancer in Paradise> WarIsACrime.org, Scoop Media, 2012. 6. 26

Vanessa Beeley. <NATO's Military Enslavement and Toxic Invasion of Sardinia> 21st Century Wire, 2016. 7. 14

Focolare Movement, <Sardinia: Converting weapons to jobs> 2017. 5. 29

■ abstract

Diverging Paths of the Island of Eco-Utopia

Hyun Mee Kim

Yonsei University

Villages in Sardinia island "are the only places in the world where men live nearly as long as women" and a home to "six times as many hundred-plus-year-olds as in any modern city"(Pinker, 2014). It is believed the Sardinian longevity is attributed to its indigenous food, working conditions and social cohesion. The area's geographic isolation as an island created its tightly bonded families and communities, and social bonds influenced their sense of satisfaction with life and how resistant they are to diseases (ibid.). Recently, Sardinia is paying attention to sustainable ecotourism to attract tourists with unpolluted, clear waters of its coast, and to keep the waters clean for future tourism.

On the other hand, the island is the site of highly advanced military complex where 80 percent of Italy's military bases are concentrated. Post World War II, Italy's largest rocket-launching station was built in Sardinia in 1956. Through several years of expansion, the Inter-Service Test and Training Range (PISQ) will become the most important military experimental weapons testing and training center in Europe. Building military bases on the island aimed at defending against external threats, attacking for war, and preventing independence movement or activism of the island. Under the frame of moderniz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job opportunities, the construction was more dominantly understood as the alternative to Sardinia's underdevelopment, convention, poverty and backwardness was prevalent. By such reason, the negative impacts of the military bases over the past 60 years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However, the eastern coast of Sardinia now has high rate of cancer and leukemia caused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water and soil pollution, and it is becoming a land of 'death' witnessing animals born with deformities. The social resistance to the negative influence of the bases is also on the rise. Nevertheless, there is still strong confidence i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military bases such as job creation. Many among the opinion leaders such as civil servants and intellectuals interviewed by the researchers made a very paradoxical claim that "the presence of military bases enabled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s by controlling the access of people."

How can this incompatible reality be possible in Sardinia, an ecological utopia? This paper analyzes Sardinia's situation and conditions behind having an image as a sustainable eco-utopia and becoming the ground for the worst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by providing a comparative perspective for Jeju's future development model. By juxtaposing Sardinia, emerging as the eco-paradise of indigenous food culture, social bonds and natural environment, and another Sardinia as the site of the worst pollution from the concentrated military bases, it analyzes what various courses can be taken by the special condition of being an 'island'. It further discusses how Sardinia's case can form a reference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Jeju as the ecological/peace island.